

자본주의《금융경제》가 사회적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김두선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금융화과정이 다그쳐짐에 따라 사회경제생활전반이 금융의 지배하에 놓이고 나라의 경제활동에서 금융의 주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었다. 오늘 국제적으로 이러한 경제를 금융의존형경제, 《금융경제》라고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는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며 무정부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임니다.》(《김일성전집》 제80권 329페이지)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만능의 사고방식과 리윤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은 자본주의경제를 가치법칙과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금융의존형경제, 《금융경제》로 전변시켰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경제의 금융화과정이 심화되고 확대된 결과에 형성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이란 경제활동에서 신용적류통, 금융적류통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일정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다.

산업자본주의시기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상업신용이 생겨나 상업수형의 류통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거래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상업신용에 기초하여 은행신용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일련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결합된 금융기구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재생산과정의 반영인 동시에 경제의 금융화과정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은 금융자본의 형성과 금융과두지배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지는 제국주의시기에 은행자본의 지배적작용밑에서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은행체계, 은행자본의 보급은 전면성을 띠고있었지만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확대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었기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완전한 금융의존형경제로 전환시킬수는 없었다.

《금융경제》가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형태, 경제분야로 나타난것은 20세기 후반기부터라고 할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많은 나라들에서는 재정금융중시의 경제처방인 《조절적자본주의론》에 의거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아갔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하여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경제의 금융화과정을 급속히 추진시킨 기본공간으로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기부터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이 다그쳐진 결과 오늘날 자본주의경제는 금융의존형경제, 《금융경제》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하나의 독특한 경제체계로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재생산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적재생산을 화폐운동과 심히 배리되게 한다. 이것은 《금융경제》가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사회적재생산과정은 화폐의 운동을 동반한다. 일반적등가물인 화폐는 재생산과정에서 그 매개물로서 운동할수 있으며 개인들의 수중에서 소비생활을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할수 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화폐자금의 운동은 두가지 형태를 취한다. 그 하나는 재생산과정에서 현물소재들의 운동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다른 하나는 재생산과정에서 떨어져 독자적인 운동형태를 띠게 되는것이다.

화폐자금은 일반적으로 현물소재들의 운동과정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자금의 운동이 언제나 현물소재의 운동과 일치하며 함께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복무할 사명을 지닌 화폐는 사회적재생산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끊임없이 련속되는 재생산과정에서 현물소재는 구입과정과 생산과정, 판매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련속성은 현물소재들이 재산순환의 3단계에 항상 놓여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경과하여야 보장된다. 현물소재들의 이러한 운동형태들에 맞게 화폐자금도 운동하여야 하지만 화폐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하여 화폐자금운동과 현물소재의 순환사이에는 일련의 차이가 생긴다.

화폐운동은 사회적재생산과 일시적으로 동떨어져 작용하기때문에 화폐운동에는 사회적재생산과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금융경제》는 현물소재의 운동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화폐운동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를 대표하고있다.

자본주의《금융경제》의 구체적령역은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외국환자거래, 국가신용거래, 기업금융거래 그리고 개인금융거래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금융경제》가 사회적부를 생산하고 류통시키는 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가 아니라 일단 사회적부의 재생산과정에서 벗어난 금융적류통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는 현물소재들의 운동과정이 기본으로 되고 사회적자본의 운동과정으로서의 재생산과정에는 화폐자본의 운동도 포괄되게 되지만 이때 화폐자본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산업자본의 운동테두리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금융경제》의 바탕으로 되는 화폐운동과정은 현물소재운동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자본의 작용이 전면적으로 강화된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사회적재생산이 화폐운동과 더욱 우심하게 배리된다.

현물소재의 운동과 배리된 순수한 화폐자금운동이 실물경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거래가 세계를 휩쓰는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금융경제》의 주요특징이며 오늘 이것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다음으로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의제화를 다그치게 한다.

《금융경제》에서는 재생산과정이 의제자본의 운동과 매우 깊이 밀착되게 된다.

의제자본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제적인 가치물은 아니면서도 그 소유자에게 리익배당금, 리자의 형태로 소득을 가져다주는 유가증권형태의 자본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식, 공채, 사채, 부동산저당증권 등의 유가증권들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면 언제나 리득을 얻게 된다.

의제자본을 이루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매된다. 의제자본의 가격은 규칙적으로 얻게 되는 일정한 액수의 화폐소득에 대한 청구권의 가격과 같다. 대자본가들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세를 조종하여 증권투기를 진행하여 소액증권소유자들을 수탈한다.

《금융경제》에서는 잉여화폐자본이 공사채, 주식 등에 투자되어 자본증권을 늘이게 하며 그것들이 의제자본의 토대로 되는 불로소득을 얻는대로 지향된다. 이러한 지향은 의제자본가격의 심한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자본운동의 투기성을 강화하고 투기자본의 증식지반을 확대시켜나간다.

현대자본주의에서 의제자본은 실제자본보다 빨리 늘어난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주식회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리윤이 늘어나며 리자률이 줄어드는 결과에 주식, 공채, 사채 등 유가증권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주력저당증권의 발행규모는 3배나 증가하여 7조 3 000억US\$에 달하였다. 리윤이 증대되고 리자률이 저하되는 시기에는 주가는 높고 반대로 리윤이 감소되고 리자률이 높아질 때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특히 공황기에는 소유한 주권을 대량적으로 판매하기때문에 주가는 더욱 폭락된다. 이러한 주식시세의 변동을 기회삼아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의제자본의 규모는 대단히 커지며 증권시장은 활기를 띠면서 자본주의경제자체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속이 빈 거품경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제자본이 재생산과정밖에 있으면서 자본운동결과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어내는 자본형태라면 사회적재생산의 의제화현상은 사회적재생산이 의제자본의 작용을 우심하게 받거나 또는 기능자본의 경영관리에서 의제자본의 적용수법들이 널리 도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재생산과정에서 기본고리를 이루는 기업체들이 의제자본의 운동형태를 리용하여 생산기업활동보다 증권투자에 더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업체들은 《금융경제》에서 의제자본의 운동이 확대된 기회를 리용하여 자본의 집중화과정을 다그쳐나간다.

특히 오늘날 비은행금융거래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의 증권화현상이 다그쳐짐으로써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의제화는 매우 다양해지고있다.

자본주의《금융경제》는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재생산과정을 더욱 기형화하고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생산의 무정부성과 같은 자기의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이 호경기, 불경기 등의 경기순환속에서 이루어진다.

《금융경제》는 자본주의적경기순환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재생산과정을 기형화시킨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이미전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여 경기를 변화시키는 여러가지 경기조절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오늘날의 《금융경제》에서는 자연히 종전과 달리 금

용정책적요소를 많이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이 실시하는 이러한 경기조절정책도 자본주의경제상태를 개선하는 실질적대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경제의 금융화의 요구에 맞게 채택된 금융중시의 경기조절정책을 가지고서는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의 불경기, 1998년이후의 경제감퇴, 2007년이후의 불경기,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없었다. 금융경제하에서 여러가지 경기조절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경기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세계는 비교적 장기적인 불경기를 겪고있는데 이것은 금융경제하에서 사회적재생산과정이 정상성을 잃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금융의존형경제로서의 《금융경제》는 자체의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기형적인 재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오늘 자본주의는 《금융경제》의 특징과 사회적재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으로 하여 혼란과 침체위기에 처하여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금융경제》와 그것이 사회적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실마리어 자본주의, 《금융경제》